

“쌀값 안정·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대해야”

민선 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추극 강 시장 “수도권 집중...국가 질병” 김 지사 “중앙지방협력특별위 구성” 제16대 회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 수도권 집중현상을 ‘국가질병’으로 규정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특히 “(현 정부가) 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적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분명히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하고,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도 적극 홍보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사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추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밤 9시 불 끄세요 광주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에너지의 날’ 소등 캠페인

‘제19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주중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 에너지전환 네트워크’(광주 에너지넷)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26일까지 ‘에너지의 날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의 날 당일인 22일 밤 9시에는 ‘모든 불을 끄는’ 소등 캠페인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된다.

불교환경연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자제품 코드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기기 사용하기,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위해 우리 집에 재생에너지 설치하기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D-기후 정의’ 집담회’를 열며,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6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행동’을 진행한다.

에너지의 날 행사 주간에 끝난 뒤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광주시 에너지 전환 실천캠페인 영상 공모전’이 다음 달 16일까지, ‘제2회 광주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공모대회’가 10월 7일까지 에너지넷에서 접수 중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너지의 날 주간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넷 사무국(062-710-5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에너지 분야 신규사업 발굴 쟁점

지역 혁신기관 전문가 참석
정부 정책 연계 아이템 발굴

전남도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원전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역 장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국고 건설사업 발굴을 위해 에너지 분야 혁신기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에너지 분야 신규 국고 건설사업 아이템 발굴 회의’를 최근 나주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024년 국고건의 사업과 대규모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기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교수가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발제하고, 혁신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가 새정부 원자력정책 및 세계원전산업 기술동향을 소개한 후 전남도가 강점을 갖고 추진 가능한 원전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이 기획 연구하는 30여 사업 아이템을 공유하고, 앞으로 오는 2024년 국고건의를 위한 상세 기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회의에서 제안된 아이템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시군 관련부서 및 해당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부합한 경쟁력 있는 국고건의 사업을 기획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의 강점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능형전력시스템 기업 지원 나선다

스마트 특성화 구축사업 선정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지원 설명회

광주시가 차세대 에너지 수급 체계인 지능형 전력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2024년까지 국비 60억원, 시비 26억원을 들여 지능형 전력 시스템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기술 지원·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에 관련 장비 15종을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인력 양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23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인 지능형전력시스템의 사업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과 기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능형 전력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한전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 생산·소비·공급이 양방향, 실시간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권대혁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지역 연구역량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시스템의 사업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통해 광주 지역 에너지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전략 수립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전략수립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광주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이하 시행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및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제1차(2018~2022년) 시행계획 기간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2023~2027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선형계획 성과평가, 폐기물 발생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 변화와 전망, 추진목표와 핵심 전략 설정, 부문별 계획수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기후환경센터와 관련 전문가 및 시 자원순환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 시·자치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효과적인 자원순환정책 방향 및 향후 용역 진행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구람 친구하실래요?

내 손안의 동구! 편리하게 동구를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광주 동구 공식 어플 & SNS로 이동합니다.



Google play





App Store





동구 '두드림'은 다양한 동구소식 안내와 정책투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광주 동구의 모바일 앱입니다.

광주 동구 공식 SNS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QR코드 스캔방법

카메라 열기

▶

QR코드 스캔

▶

화면 팝업창 클릭 후 입장



광주광역시동구